



오리협회 충북도지회 음성군지부

‘음성명작페스티벌’ 오리고기 소비홍보



충북 음성군의 명품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3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금양읍 금빛근린공원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음성명작페스티벌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화훼, 고추, 인삼을 주제로 개별로 개최하던 3개 농산물 축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음성 농부의 선물, the 명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각양 각색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재즈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추, 인삼, 과수, 축산물과 다양한 일반농산물을 살 수 있는 명품장터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즐길 거리 체험과 더불어 먹거리도 풍요로웠다. 음성 참우뚝 숯불구이 축제를 알리고 음성지역 한돈을 비롯해 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도 함께 진행됐다.

오리협회 충북도지회 음성군지부는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시식회를 개최하고 오리와 관련된 기념품을 배포해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음성군지부 송영학 지부장은 “음성 우수 농특산물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오리고기를 마음껏 즐기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음성 농축산물과 더불어 불포화지방산이 체내 질소를 분해해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오리고기 우수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